

공간 클럽 - 04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p>1회</p> <p>a. 공간은 하나인가요?</p> <p>b. 공간의 증거</p> <p>c. 공간은 없다</p>	<p>5회</p> <p>a. 중성의 공간</p> <p>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p> <p>c. 공간의 성격-장소성</p>	<p>9회</p> <p>a. 공간의 경계</p> <p>b. 공간의 관계</p> <p>c. 공간의 모듈</p> <p>d. 공간의 비례</p>
<p>2회</p> <p>a. architectonic space</p> <p>b. 노자의 공간개념</p> <p>c. 5차원공간</p>	<p>6회</p> <p>a. 공간의 밀도</p> <p>b. 공간의 위계</p> <p>c. 공간의 전이</p>	<p>10회</p> <p>a. cyber space</p> <p>b. space syntax</p> <p>c. spatial behavior</p>
<p>3회</p> <p>a. 누구의 공간인가?</p> <p>b. 얼어붙은 공간</p> <p>c. 서랍속의 공간</p>	<p>7회</p> <p>a. 공간의 창조</p> <p>b. 기억나는 공간</p> <p>c. 쉬운 공간만들기</p> <p>d. 공간실험</p>	<p>11회</p> <p>a. 공간속의 기동</p> <p>b. 싸나리오 있는 공간</p> <p>c. 창으로 본 공간</p>
<p>4회</p> <p>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p> <p>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p> <p>c. 공간지놈지도</p>	<p>8회</p> <p>a. served space & servant space</p> <p>b. 공간의 종류</p> <p>c. 공간의 극</p>	<p>12회</p> <p>a. 공간계획</p> <p>b. 공간디자인</p> <p>c. 공간문법</p>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The Three Values of Space

공간의 가치에 대해 세속적으로는 평당 얼마라는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평당 가치는 그것을 팔려고 하거나 사려고 할 때만 문제가 될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는 공간의 평당 가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조건 내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내리든 교환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공간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거주하고 있는 이 시간에 공간은 크게 3가지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존재와 관련해서는 공간이 나를 대신(나를 확대, 또는 표현)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숲츠는 노르웨이의 작가 타제이 베사스의 소설을 인용하면서, 집과 인간의 일체감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소설에서 “너트, 너는 이제 집에 왔다” 의 한 구절을 통해 인간이 집이라는 공간을 경외하고, 공간과 인간이 일체화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매우 편



그림 1. 숲에서...



그림 2. 집으로...

안한 어휘인 이 구절은 모두가 느끼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간은 그렇게 편하게 나와 관련을 갖는다.

나만이 갖는 공간은 그렇게 나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므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공간은 내가 된다. 나를 안다는 것이 힘들지만, 나만이 차지하며, 나만이 누리며,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몸과 같이 내 몸 밖의 공간이지만 내 몸과 똑같이 나만이 차지하며, 나만이 누리며, 나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일 것이다. 공간은 내 몸이 차지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기도 하지만, 내 몸 밖의 공간으로서 차지될 수 있도록 비워져 있기도 하다. 그것은 비워져 있음으로서 나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 나의 취미를 키우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 그 공간은 나의 습관을 표현하고 있고, 나의 취향에 맞춰져 있게 되며, 여러 가지 나의 활동을 담는다.

그것들은 전부 나의 몸에서 나오는 다른 모습의 하나인 셈이다.

나를 대신함으로서 가치를 갖는 공간은 가깝게는 내 방으로부터 내 집,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도시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계천의 복원은 나를 대신하는 확장된 영역의 도시에 대한 수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몸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듯 나의 도시를 그렇게 고쳐나가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내 방으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공간들이 제 가치를 갖고 나에게 적합성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겠다.

삶의 의미측면에서는 나에게 감동을 줌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나를 담으며, 나를 대신하고 있는 공간은 멈추어 있지 않으며 세계의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다. 자궁속 공간과 같이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시간 변화속에서 빛의 움직임이 있으며, 봄, 가을의 계절변화속에서 단풍의 불그스름이 창박을 아른거린다. 비오는 날의 축축함과 시원함이 있으며, 맑은 날의 깨끗함이 있다. 추운 겨울날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의 열기가 따스하며, 바람부는 날에는 피부의 생동감이 나를 느끼게 해준다. 6월이면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고, 8월에는 짓푸른 소나무가 생동감을 드러내고, 10월이면 호박넙쿨에 누런 호박이 탐스럽게 열린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창가를 울리고, 까치의 지저귀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있음으로서 나의 지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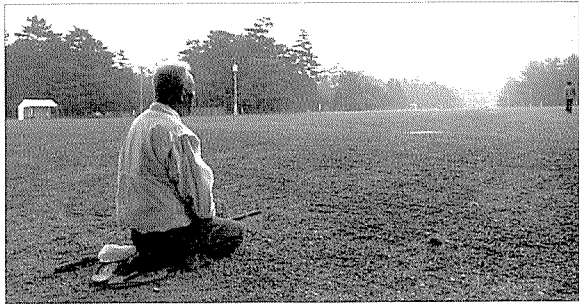


그림 3 감동의 순간: 사진-Akira Tanigu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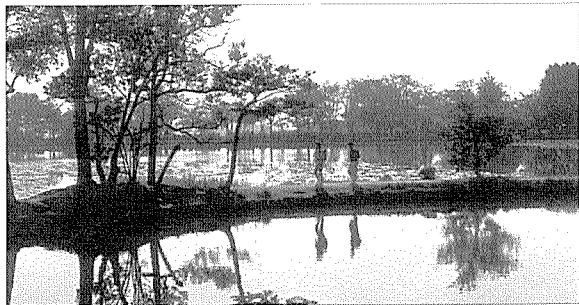


그림 4 감동의 순간: 사진-Akira Taniguchi

공간에는 감동이 있다. 이것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축이 빛을 발한다. 놀라움, 신비로움, 포근함, 희열, 계절감, 발랄함, 시원함.....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답답함, 단조로움, 쓸쓸함, 삭막함, 침침함, 썰렁함, 어색함...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가치관이 혼동되는 세상에서 어떤 감동이 좋다고 언급하기는 힘들겠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면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내부공간은 그 특이함으로 감동을 준다. 한옥의 중정은 안온함을 준다. 라 파엘 비놀리의 동경포럼 건물의 아트리움은 장대함을 준다.

그러나 많은 감동이 공간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간주변에 의한 것일 때가 많다. 공간의 규모나 형태, 공간의 비례, 공간의 개구율, 공간의 관계 등등은 차선일 때가 많으며, 차경된 경치, 유입된 빛의 질감, 날씨, 온도와 습도, 공간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등이 공간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우선 요소일 때가 많다. 공간과 공간외적 요소,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단정짓기 힘들기는 하지만 감동을 주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보다 잘 느끼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요구된다. 감동을 주기 위해 공간의 모양과 배열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의 위치나 창문의 모양과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건축가는 인간이 감동하게 되는 공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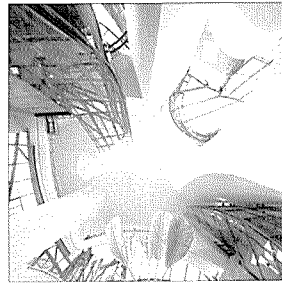


그림 5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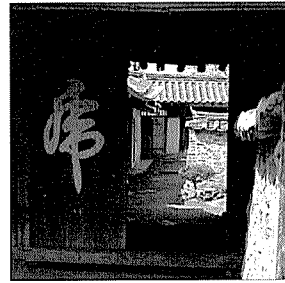


그림 6 외암리 영암댁 안마당쪽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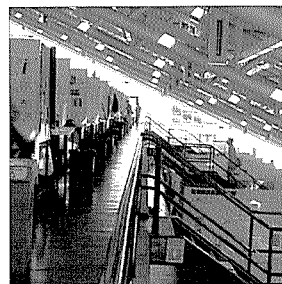


그림 7 허버드건축 대학원 내부



그림 8 인도다다오의 영화의 정원

해 열심히 탐구하고 적절히 잘 활용하여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공간은 감동을 줌으로서 그 가치를 갖는다.

가장 실용적으로는 나를 지지함으로써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공간은 최종적으로 나의 소유이거나 나를 표현하거나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한 Maslow의 인간 요구에 대한 다섯 단계 중 4, 5단계에 해당된다. 그의 이론에 의한 1, 2, 3 단계의 공간의 가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단계는 성립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Maslow는 인간의 삶의 요구를 5 단계로 나뉘 물리적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소속에 대한 요구, 사랑의 요구, 존경의 요구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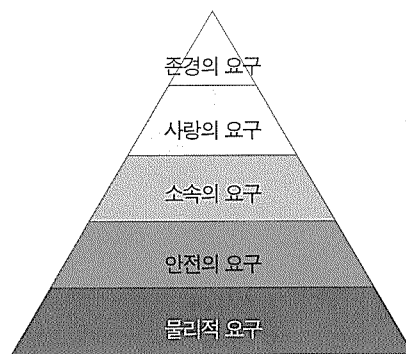


그림 9 마슬로우의 인간의 요구5단계

이러한 요구를 건축공간에 대응하여 보면, 첫째로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피난처로서의 요구이다. 비와 눈, 바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의 역할이다. 아무리 비싸게 지은 건물도 비가 새고 있다면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생활 행위와 관련한 기능성의 요구이다.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불편함이 다른 가치들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필요한 곳에 계단이 없고, 돌아서 가야만 하는 문과, 엉뚱한 위치에 놓인 전등 스위치들은 생활행위를 불편하게 하면서 공간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셋째는 인간의 생활방식과 관계한 문화적 요구이다. 아파트에서 거실의 위치는 동서양이 다르다. 학교와 사무실은 공간의 배열방식이 다르다. 소규모 사무공간과 대규모 사무공간은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 사장과 사무원의 공간은 크기나 공간의 관계 형식이 다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생활방식을 지지하는 공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될 때, 인간의 요구가 공간으로 수용되어졌다고 판단된다. 공간의 기본적 역할들이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은 나를 지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나는 나를 느끼도록 하는 공간의 감동을 찾고, 나와 일체가 되는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공간은 궁극적으로는 나와 같게 됨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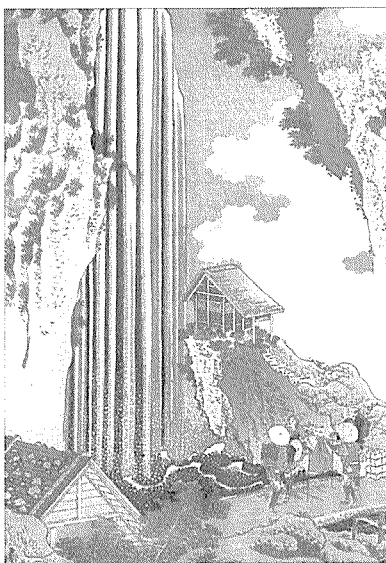


그림 10 폭포옆의 조그만집
- 그림 : 호꾸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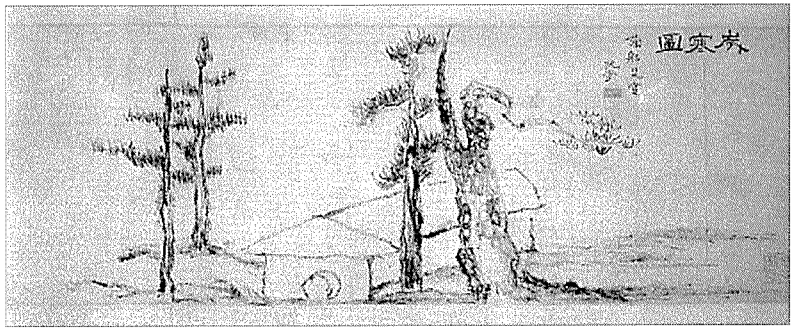


그림 11 김정희의 세한도에 보이는 허름한 집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나와 일체가 되는 공간을 찾기도 한다. 비가 새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공간 내부에서 비를 느낄 수 있으니 좋다고 하고, 돌아가는 문을 보고 여유가 있어서 좋다고 하고, 위계가 없는 업무공간을 평등하다고 인정해 버린다면, 마슬로우의 인간요구 1, 2, 3단계는 이론적으로만 맞는 허상이며, 결국 인간에게는 그 자신과 일치된 공간에 대해서만 최선의 공간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대적 공간에 대한 막연함이 궁극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축공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를 어렵게 하는 인간의 비과학적 속성이다.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Logical Approach to Space

공간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공간으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실존적, 예술적 가치에 대해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리”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속성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공간의 절대적 가치를 공간과 자신의 일체로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타인과 쉽게 공유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나와 타인의 차이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 차이점으로부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복원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 시도의 하나가 ‘논리’라는 관계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논리가 우선이며, 인간활동과 제약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사회적 업무와 조직은 논리를 기준으로 일어난다. 공장의 생산품은 화학 반응이라는 논리적 단계를 거쳐 생산되거나 조립의 논리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일찍이 Hillier는 인간의 사회조직과 활동이 논리적인 질서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은 건축공간도 논리적인 조직으로 이해

되고 표현 되어야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생산 될 수 있을
을 주장하였다. Hillier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회생활
과 관련되며, 사회는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이해되므로, 사
회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질서를 가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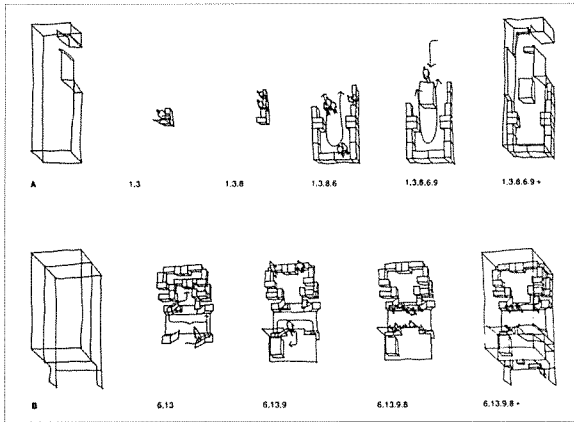


그림12 사무공간의 조직 다이어그램

그는 space syntax 라는 공간구문론을 만들어 낸 것
으로 유명하다. 공간속에 숨겨진 사회활동의 공간적 질서를
표현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공간의 관계를 일정한 규
칙에 의해 해석해내려는 그의 시도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조직의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공간의 관
계에 대한 논리성이 증대되면서 보다 진화된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조직으로 건축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Steadman은 Frank Lloyd Wright의 서로 다른 여
러 개의 주택을 똑같은 논리 다이어그램으로 분석해내고 있
다. 그러나 그 주택들은 모두 다른 경험을 만들어 낸다. 논
리상으로는 같은 지점이지만 공간의 경험은 전혀 다르게 나
타난다. 경험과 미적 효과가 다른 주택들을 똑같은 다이아
그램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라이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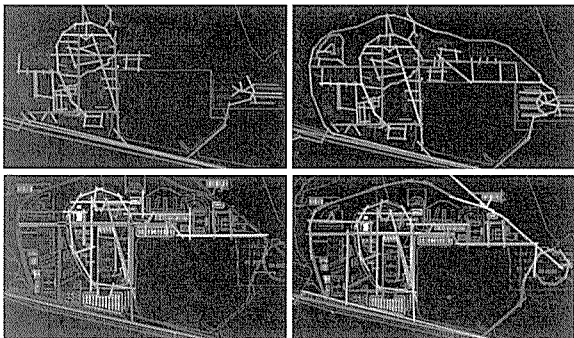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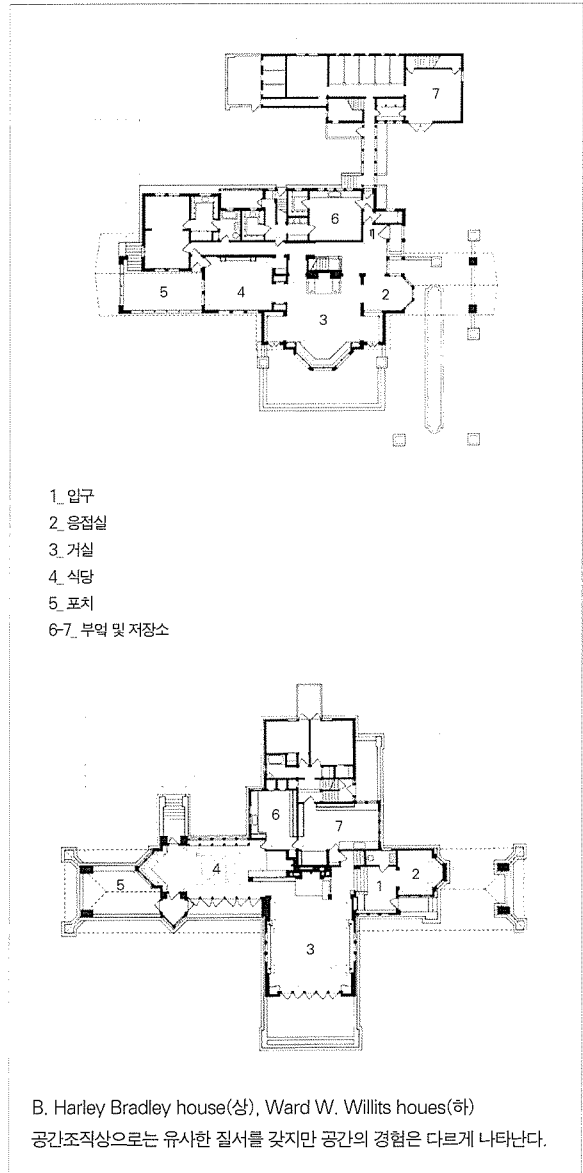


그림13 space syntax 다이어그램의 한 예

설계한 주택의 논리적 공간조직이 동일할 수는 있으나, 각
각의 주택들은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다른 집이다. 그것
을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접
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B. Harley Bradley house(상), Ward W. Willits houses(하)
공간조직상으로는 유사한 질서를 갖지만 공간의 경험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14 라이트의 주택평면

여러 가지 한계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논리적
체계로 분석해야하는 이유는 논리의 설명력과 논리로 이루
어지는 사회활동의 영역에 대응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이다. 그것은 개인적 공간과는 다른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차이만큼이나 표현의 의미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c. 공간지놈지도 Space Genom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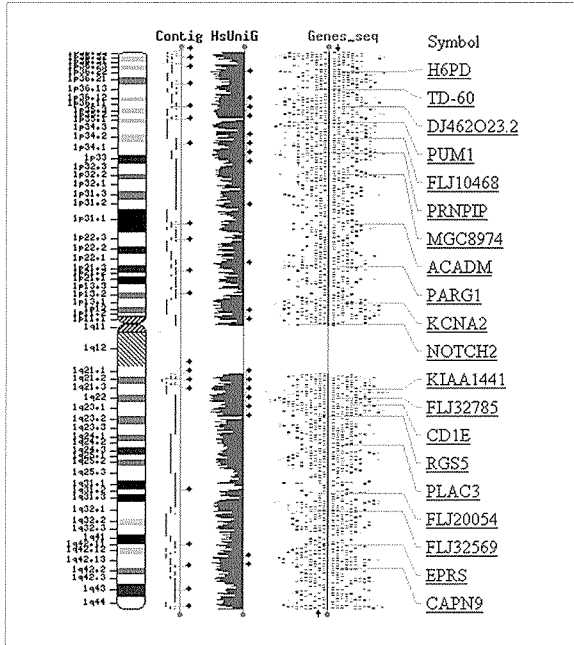


그림15 유전자 지도

2000년 6월 인체 지놈의 초안이 완성 발표되었다. 지놈은 원어로 gene과 some의 합성어로서 '유전자'와 '어떤 형태'의 합성이 되어 유전체로 해석된다. 인체 지놈(유전체)은 인간의 유전정보의 한 세트를 말하며, '인간의 설계도'라고 불린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10만개로서 30억개 정도의 염기배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체 지놈에 담겨있는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지놈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지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놈 지도 없이는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을 정확히 배열하지 못할 것이며, 생물종 사이의 방대한 유전정보를 서로 대응시키는데 있어서도 유전자 지도는 필수적이다.

인간지놈지도의 완성은 인간의 유전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각종 모습과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병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장수, 건강에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30억개의 유전자 배열이 각각 어떠한 인간의 모습과 상관되고,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지를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나온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도 하다.

인간지놈지도는 인간의 실체와 건강, 장수의 비밀에 대한 요소적 접근의 승리를 뜻한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실체, 또는 존엄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결과물로 전락하고 마는 상황처럼 보여진다. 인간과 환경, 지구와 우주의 종합적 연계성이 논의되기 보다는 요소에 의해 해석되고 관련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는 지놈지도의 변형에 의해 새로운 종의 인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공간지놈지도는 공간을 분석, 해체하는 과정이 된다. 몇 개의 유전적 요소가 건축공간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결합방식을 파악함으로써 30억 개에 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지놈지도를 그려내고, 궁극적으로는 공간과 인간의 상관성에 대한 1:1 대응의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간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이며 관념적인 또는 심리적인 여러가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요소적 접근에 의한 상관요소의 추출은 인간지놈지도의 의미처럼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요소로 해체된 공간정보는 요소 변형에 의해 이형공간의 생성이 무한 발전할 것이며, 공간의 결합방식 자체를 조정하여, 공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치환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지놈지도의 완성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적을 뿐더러, 30억 개에 달할지도 모르는 공간의 정보를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인간의 생명에 대한 연구의 가치만큼 상응한 가치가 있을지- 그 작업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재료는 인간의 발명에 따라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재료가 바뀌면 다른 공간지놈의 쌍과 연관되는 지도가 무한에 가깝게 또다시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건축물에 대한 분류체계는 매우 단조롭다. 겨우 16개의 항목에 의해

구분	내용
F1	Compound spaces of building
F2	room
F3	Circulation spaces
F4	Building sub-spaces
F5	Internal spaces of building
F6	External spaces of building
F7	Building spaces by degree and type of enclosure
F8	Miscellaneous, other spaces
F9	Building spaces analysis

그림16 NBS의 공간정보 분류

건축물이 분류되며, 건축공간은 바닥과 벽과 천정이라는 3개 요소로 분류된다.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한 분류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이제 초보의 단계이다. Autocad, Microsoft 등의 업체가 참여하며, 영국 등 10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는 건축 정보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표준화 방식이 정착되면, 그 방식에 따라 건축관련 프로그램(건축공간 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식을 따라야만 국제적 호환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공간지능지도처럼 공간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공간의 실체가 요소로 분해됨으로서 요소에 대한 변형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요소변형에 의한 다양한 공간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크 거리의 휨공간도 결과물로 본다면 휨공간이지만 공간지능지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벽이라는 요소에 대해 직선화 되지 않는 가능성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렉 린의 절편화된 공간은 결과물로 본다면 절편화된 공간이지만 공간지능지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닥, 벽, 천정이라는 요소가 선이라는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미분적 시각이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요소중심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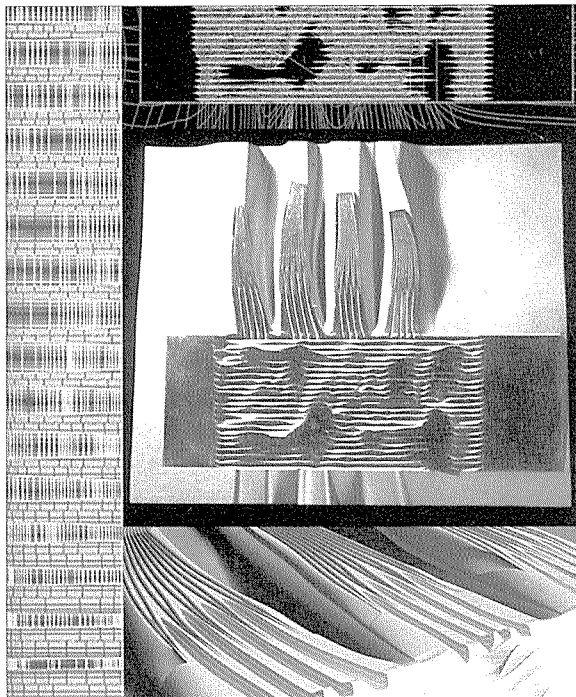


그림 17 절편화 시킨 공간

의 폐해를 예측하게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새로운 공간의 창조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요소 변형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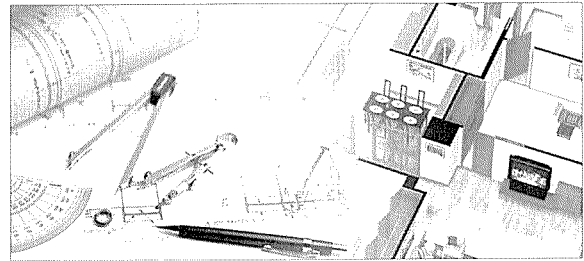


그림 18 똑같은 요소의 반복을 보여주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간지능 지도는 과거 건축계의 대가들이 설계한 건물을 해석해냄으로서 그러한 공간의 무한 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스의 평면이나 르꼬르뷔제의 주택이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어질 수 있을 것이며, 몇가지 요소를 바꾼다면 현대적으로 변형된 르꼬르뷔제의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소의 결합에 의해 미스와 르꼬르뷔제의 특성을 함께 가진 주택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델하우스의 스펙이 100번, 1000번씩 반복하여 적용되는 모습은 이미 우리의 주변이 요소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실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